



KWC 2019 New Zealand Wines

지난해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에 뉴질랜드는 35종의 와인을 출품했다. 참가수량으로 보면 포르투갈과 공동으로 8위다. 더 중요한 사실은 KWC 2019에서 수상한 와인 중 뉴질랜드 와인이 총 29종이라는 사실. 이로써 뉴질랜드 와인은 늘 일정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날씨는 점점 더 포근해지고, 청량한 뉴질랜드 와인이 생각나는 계절, KWC 2019에서 수상한 뉴질랜드 와인을 소개한다.

글 강은영 사진 New Zealand Wine Growers



① 화이트 와인이 압도적

KWC 2019에 수상한 뉴질랜드 와인 29종 중 23종이 화이트 와인이다. 그 외는 스파클링 1종과 레드 와인 5종(모두 피노 누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이트 와인 중에는 물론 소비용 블랑이 가장 많으며, 샤르도네, 리슬링, 게뷔르츠트라미너, 피노 그리 등을 볼 수 있다.

② 피노 누아의 선전

KWC에 베스트 컨트리 와인이 신설된 이래, 뉴질랜드는 꾸준히 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여섯 차례 선정된 베스트 뉴질랜드 와인 중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노 누아였다는 사실은 뉴질랜드의 피노 누아의 퀄리티를 입증한다. KWC 2019에도 피노 누아가 수상을 했다.

③ 높은 퀄리티와 새로운 시도

KWC 2019에서는 화이트 와인에 대한 평이 특히 좋았는데, 뉴질랜드 소비용 블랑 플라이트도 그 중 하나였다. 한편 뉴질랜드의 피노 누아는 기존의 부드러움과 신선한 스타일에서 좀 더 외일드한 면모도 보이는 등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을 얻었다.

뉴질랜드의 주요 와인 산지

Marlborough 말보로

남섬의 동북쪽에 위치한 말보로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산지이자, 소비용 블랑의 메가로 꼽히는 곳이다. 실제 말보로의 소비용 블랑이 급부상하며 뉴질랜드가 세계 와인 지도에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됐다. 그로인해 말보로의 포도밭은 26,288ha에 이르는데 이 나라 총 포도밭 면적의 2/3에 해당한다. 이중 소비용 블랑이 20,880ha로 압도적이며, 그 외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는 피노 누아(2,669ha), 샤르도네(1,095ha), 피노 그리(1,082ha) 등이 있다. 말보로는 3개의 세부 지역으로 나뉜다. 먼저 서던 밸리(Southern Valleys)는 오마카, 페어홀, 브랜콧, 벤 모르반 같은 언덕과 와이호파이 밸리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피노 누아 생산에 좋은 지역이다. 두 번째 와이라우 밸리(Wairau Valley)는 토양은 오래되었고 자갈이 많다. 이 지역 와인의 특징은 농도 짙은 과일과 바다감에서 나온다. 와이라우 남쪽에 있는 아워테레 밸리(Awatere Valley)는 해변에서 내륙까지 뻗어 있으며, 카이코우라 산맥까지 이어진다.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춥고 건조하며 바람도 강해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아로마틱한 피노 누아와 캐리터가 뚜렷한 소비용 블랑이 난다.



Hawke's Bay 흑스 베이

말보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와인 산지다. 이곳에 처음 포도나무가 식재된 것은 1851년,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이 지역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보르도 블렌드 스타일의 와인, 시라, 샤르도네 그리고 아로마틱한 화



이트 와인 등이 성공하면서였다. 서늘한 뉴질랜드에서는 좀처럼 성공하기 힘든 품종들도 따뜻하고 포도가 완숙하는 시즌이 길게 이어지는 흑스 베이에서는 잘 자라는 편이다. 이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가 잘 되는 해변 지역(Coastal Areas), 레드 품종들이 많이 식재되는 언덕지대(Hillsides), 메를로나 까베르네 소비뇽을 많이 재배하는 충적토 평야 지대(Alluvial Plains)로 나눌 수 있다. 평야지대의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브릿지 파(Bridge Pa)나 김블렛 그라블스(Gimblett Gravels) 지역이 있다. 배수가 잘 되는 충적토와 자갈 토 덕분에 가장 뛰어난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가 나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Gisborne 기스본

북섬의 중부에서 동쪽 끝에 위치한 기스본은 제임스 쿡 선장이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디딘 땅으로 알려져 있다. 또 뉴질랜드에서 3번째로 큰 와인 산지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높고 따뜻한 편이라 수확 시기도 가장 이른 편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독특한 품종은 샤르도네다. 기스본의 포도밭 면적 총 1,180ha의 절반에 가까운 574ha가 샤르도네로 덮여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피노 그리(261ha)이며, 이 외 소비용 블랑, 게뷔르츠트라미너, 메를로 등이 재배된다.

Wairarapa 와이라라파

마오리족 어로 '반짝이는 물'을 뜻하는 와이라라파에는 많은 부피끄 와이너리들이 자리 잡고 있다. 뉴질랜드 포도밭의 3%, 총 와인 생산의 1%를 차지할 뿐인 지역이지만 프리미엄 퀄리티 와인을 논할 때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세부 지역으로 마틴보로(Martinborough), 글래스톤(Gladstone), 마스테르톤(Masterton)이 있다. 이중 마틴보로는 부르그뉴의 비슷한 기후 및 토양의 특징을 보이는 곳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피노 누아와 뛰어난 소비뇽 블랑을 생산한다.



Nelson 넬슨

남섬의 북쪽 끝에 있는 넬슨은 일조량이 높고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띤다. 또 지리적 입지 덕분에 강한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넬슨 지역에서는 독일 이민자들이 1800년대 중반부터 포도나무를 식재하고 와인을 생산했지만 오랫동안 다른 과일이나 곡식이 많이 재배되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몇몇 생산자들이 현대적인 와이너리를 설립하면서다. 지금은 부피끄 와이너리들이 생산하는 뛰어난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으로 유명하며 아로마틱한 품종들도 재배하고 있다. 총 포도밭 면적은 1,162ha다.

Central Otago 센트럴 오타고

와인 산지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유일하게 대륙성 기후를 띤 지역이다. 산이 발달한 지역으로 만년설을 덮어쓴 산이 우뚝 솟아 있고 험한 계곡 사이로 강물이 흐른다. 1800년대에는 골드러시를 맞이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이 와인 산지로 빛을 발한 것은 1970년대 선구자적인 와인메이커들의 도전 정신 덕분이었다.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피노 누아를 생산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그 결과 총 1,873ha의 포도밭 중 1,484ha가 피노 누아 밭이다. 그 외에는 소량의 피노 그리, 리슬링, 소비뇽 블랑 등이 생산된다.

Auckland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다. 총 포도밭 면적은 313ha에 불과하며 이 나라 와인 생산량의 1% 미만에 그친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와 레바논, 영국에서 온 와인메이커들이 1900년대 초 터를 마련한 비교적 오래된 와인 산지다. 큰 와인 회사들과 함께 부피끄한 와인 생산자들이 기반을 두고 있다. 세부 지역으로 와이헤케(Waiheke) 섬은 뛰어난 시라와 세계적인 수준의 샤르도네, 농밀한 까베르네 블렌드를 생산한다. 한편 서 오클랜드 지역은 우아한 시라와 질 높은 메를로, 북 오클랜드는 까베르네 블렌드, 피노 그리, 시라가 훌륭하기로 알려져 있다.

Canterbury 캔터버리

캔터버리의 와인 산지는 남섬의 동쪽 해안가에서 거의 200km까지 이어진다. 서쪽에는 서던 알프스 산이 있고 동쪽에는 태평양이 넘실댄다. 기후는 서늘하면서 건조하고 일조량이 높고 포도가 익는 시즌이 길게 이어진다. 뉴질랜드의 마스터 오브 와인 밥 캠프(Bob Campbell)은 캔터버리의 세부지역 중 하나인 와이파라 밸리(Waipara Valley)에 대해 매우 뛰어난 와인 산지임에도 아직 그만큼 알려지지 못한 지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와이파라 밸리는 특히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로 알려져 있다.

Northland 노스랜드

이름 그대로 북섬의 북부에 있다. 1819년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이곳에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와인 산지로의 발달은 늦은 편이다. 뉴질랜드 최북단에 위치한데다 해안과 가까워 거의 아열대성 기후를 띠며 따뜻한 봄과 덥고 건조한 여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져 포도가 빨리 익는다. 그래서 비교적 풀바디하고 풍만한 와인이 나온다. 이 지역에서는 열대과일 향이 풍부한 샤르도네, 피노 그리, 비오니에 등이 많이 재배되며 레드로는 시라, 보르도 블렌드, 피노따주 등도 생산한다.



KWC 2019 수상 와인



○ Framingham Wines 프레임িং햄

프레임িং햄은 매년 엄격히 제한된 수량의 포도를 재배하여 대중적인 맛보다는 자신들만의 특색 있고 깊이 있는 와인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동시에 모든 포도밭은 지속 가능한 생산 철학을 바탕으로 관리하며, BioGro NZ LTD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포도밭에서의 작업은 모두 손으로 이루어진다. 프레임িং햄은 현재 말보로에서 가장 오래된 리슬링을 재배하는 곳 중 하나다. 와인 평론가 젠시스 로빈슨은 프레임িং햄을 뉴질랜드 최상의 리슬링 생산자로 평가했고 《The Real Review》에서는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올해의 뉴질랜드 와이너리로 선정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Gold Framingham Classic Riesling
Silver Framingham Sauvignon blanc
Bronze Framingham Nobody's Hero Sauvignon Blanc

○ Kim Crawford 김 크로포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뉴질랜드 와인 브랜드 중 하나. 김 크로포드의 말보로 소비뇽 블랑은 2010년에서 2015년, 6년 연속 국내 시장에서 유통된 뉴질랜드 와인 중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설립자 김 크로포드는 호주에서 양조를 공부하고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딴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에는 상황이 넉넉지 않아 소유한 포도밭도 없었고 와인을 만들 생산 설비도 대여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말보로에서도 6개의 세부지역에서 포도를 얻고, 2개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오직 소비뇽 블랑만 생산한다. 수입사 나라셀라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Kim Crawford Marlborough Sauvignon Blanc

○ Babich Wines LTD 배비치 와인

1916년 크로아티아계 이민자 조시프 배비치(Josip Babich)가 설립한 와이너리로 계속해서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배비치는 오클랜드와 혹스 베이, 말보로에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서늘한 말보로에서는 소비뇽 블랑과 피노 누아를, 혹스 베이에서는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 와인을 선보인다. 오랜 역사만큼 세계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와이너리로, 2012년에는 《Drink's International》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Top 50에 뽑히기도 했다. 수입사 롯데칠성음료

수상 와인리스트

Best New Zealand Red Babich Marlborough Pinot Noir
Gold Babich Black Label Marlborough Sauvignon Blanc
Silver Babich Black Label Marlborough Pinot Noir
Silver Babich Wines Forbidden Vines Marlborough Sauvignon Blanc
Bronze Babich Marlborough Sauvignon Blanc

○ Delta Wine Company 델타 와인 컴퍼니

2000년 와인 업계 전문가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와이너리다.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말보로의 독특한 피노 누아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시간을 쏟곤 했다. 결국 이들은 좋은 피노 누아를 재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땅을 발견하고 선별한 디종 클론을 식재했다. 이렇게 델타 와인 컴퍼니는 말보로의 싱글 빈야드 피노 누아로 시작해 점차 영역을 확대해, 혹스 베이의 김블렛 그라블스 지역에서도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델타라는 이름은 이들의 포도밭 모양이 그리스어 델타(Δ)와 유사하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수입사 T&E Terroir Inc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elta Pinot Noir **Bronze** Delta Sauvignon Blanc

Tohu/ Kono 토후/ 코노

토후는 1998년 뉴질랜드 최초로 마오리족이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토후는 마오리족 언어로 '표시' 또는 '서명'이라는 뜻이며 로고와 와인 레이블에도 마오리족 전통 문양을 담았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오리족 정신 그대로 이들은 친환경 농법을 고수한다. 말보로, 벨스, 흑스 베이, 기스본 등 여러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코노는 토후 와이너리와 함께 4,000명 이상의 마오리족 후손들이 주주인 식음료 기업의 와인 브랜드다. 코노 브랜드는 말보로 지역의 포도밭에서 엄선된 포도만 만들어지며 지속 가능한 포도 재배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Kono Awatere Sauvignon Blanc
Silver Tohu Marlborough Sauvignon Blanc

Mud House 머드 하우스

아콜레이드 그룹에 속해 있는 와이너리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한다. 말보로에는 105.5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소비용 블랑을 생산하고 약간의 피노 누아와 피노 그리를 재배한다. 반면 센트럴 오타고의 클레임 431 빈야드에서는 92.5ha에 피노 누아를 재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캔터버리 북부에 있는 와이파라 밸리에서는 61ha의 리슬링과 14ha의 소비용 블랑 외에 소량의 피노 누아와 게뷔르츠트라미너도 생산한다. 포도밭은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을 철학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Mud House Pinot Gris
Bronze Mud House Central Otago Pinot Noir
Bronze Mud House Marlborough Sauvignon Blanc

Mission Estate 미션 에스테이트

1838년 프랑스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이 뉴질랜드 북섬 흑스 베이 지역에 처음 포도나무를 식재하면서 미션 에스테이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초창기에는 미사용 와인을 생산했고, 1870년부터 첫 상업용 와인을 양조하기 시작했다. 흑스 베이 지역을 포함해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로 뉴질랜드에서 처음 피노 그리와 피노 누아 와인을 생산한 와이너리이기도 하다. 저명한 와인메이커 폴 무니(Paul Mooney)가 40여 년간 와인 양조를 맡고 있으며, 흑스 베이 외에도 말보로, 센트럴 오타고 지역에서 수준 높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Mission Estate Gewurztraminer
Silver Mission Estate Pinot Noir

Palliser Estate 팔리셔 에스테이트

1984년 마틴보로에 설립된 와이너리로 이 지역 와인의 우수성을 알린 선구자 중 하나다. 현재는 72ha의 포도밭에 주로 피노 누아와 소비용 블랑을 재배하며 그외 샤르도네, 피노 그리, 리슬링도 생산하고 있다. 친환경 와이너리로 1998년 이래 물, 전기 사용량을 대폭 감소시켰고 포도밭에 양을 풀어 잡초 제거를 맡긴다. 포도 찌꺼기는 퇴비로 재사용하고, 알루미늄 스크류 캡 등 포장 재질과 와인 병도 재활용하고 있다. 와인 레인지는 프리미엄급인 팔리셔와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펜카로우(Pencarrow)가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Palliser Pencarrow Chardonnay
Silver Palliser Pencarrow Sauvignon Blanc

Sherwood Winery 셔우드 와이너리

1987년 데인과 질 셔우드(Dayne&Jill Sherwood)가 크라이스트 처치 북부 지역에 있는 3.2ha의 포도밭을 기반으로 시작한 와이너리다. 25주년을 맞는 2013년에는 말보로와 와이파라 지역에 80ha가 넘는 포도밭을 소유한 가족경영 와이너리로 성장했다. 생산량은 초기에는 1,000케이스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연간 60,000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와인메이커인 피터 에반스(Peter Evans)는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에 초점을 두고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Sherwood Estate Sauvignon Blanc



te Pa Family Vineyards 테파 패밀리 빈야드

2003년 헤이스리 맥도날드(Haysley MacDonald)가 가문의 땅인 말보로의 와이라우 바(Wairau Bar)에 포도나무를 식재하며,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와이라우 바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정착했던 땅으로 맥도날드 가문은 180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했다. 1930년에는 북섬의 카피티(Kapiti) 지역에서 온 마오리 부족의 여인과 혼사를 맺게 된다. 그래서 테파는 마오리족의 상징이기도 한 님시 바늘을 로고로 쓰며 뉴질랜드의 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테파는 말보로에 500ha에 가까운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비용 블랑, 피노 그리, 피노 누아, 샤르도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Koha Sauvignon Blanc **Silver** te Pa Sauvignon Blanc

Two Rivers 투 리버스

말보로에는 크게 두 개의 밸리가 있다. 와이라우(Wairau)와 아와테레(Awatere) 밸리다. 아와테레 밸리에서 자란 데이비드 클러스톤(David Clouston)은 와이라우 밸리에 와이너리를 설립하며, 말보로 때루아의 중심인 두 개의 강에서 모티브를 얻어 '투 리버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2004년 와이너리를 설립할 당시 그는 22년간 뉴질랜드,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칠레의 다수 와이너리에서 일한 베테랑 와인메이커였다. 얼마지 않아 그는 말보로 지역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뉴 와인메이커로 부상하며 국제적으로도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다. 수입사 비노킴즈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Two Rivers Brookby Hill Pinot Gris **Silver** Two Rivers Sauvignon Blanc



Sileni Estates 실레니 에스테이트

1998년에 설립된 실레니는 그리스 신화에 영감을 받아 와인의 신 바쿠스의 양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실레노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실레니의 삼각형 로고는 좋은 음식, 좋은 와인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곧 실레니 양조 철학이기도 하다. 실레니는 흑스 베이와 말보로에 포도밭을 두고 있으며 3개의 레인지를 선보인다. 데일리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셀라 셀렉션(Cellar Selection), 좀 더 품질이 좋은 포도로 만드는 에스테이트 셀렉션(Estate Selection), 마지막으로 최상위 품질의 익셉셔널 셀렉션(Exceptional Selection)이다. 수입사 에노 테카코리아

수상 와인리스트
Gold Sileni Estate Selection Straits Sauvignon Blanc
Bronze Sileni Cellar Selection Sauvignon Blanc

Saint Clair Family Estate 생클레어 패밀리 에스테이트

생클레어는 현재 와이너리가 위치한 곳에 정착해 포도밭을 일군 제임스 생클레어 가문을 기리며 만든 이름이다. 1978년 말보로 지역에 와이너리를 설립한 닐과 주디 이보츨슨(Neal & Judy Ibbotson)은 여전히 모든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138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획별로 압착에서 양조까지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 시니어 와인메이커 헤이미쉬 클락은 2012년 <Winestate NZ/Australia> 대회에서 '올해의 뉴질랜드 와인메이커로, 생클레어 와이너리는 같은 대회에서 2010년과 2011년 연속 올해의 뉴질랜드 와이너리로 선정된 바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Saint Clair Pioneer Block 21 Bell Block Sauvignon Blanc
Silver Saint Clair Vicar's Choice Sauvignon Blanc Bubbles